

# 전장연, 출근길 지하철 시위 4·5·8호선 지연

### 4호선 32분·5호선 26분·8호선 38분 오전 8시부터 지하철 운행 지연 유발 전장연 “장애인 권리 예산 반영하라” “국회가서 하라” 출근길 시민들 항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7일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해 서울 지하철 4·5·8호선 운행이 최대 38분 지연됐다.

전장연은 이날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무책임 정부, 무응답 국민의 힘, 장애인 권리 예산·권리 입법 응답하라. 42·46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기자회견을 열고 오전 8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지하철 탑승 시위를 진행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이번 시위로 4호선 상행선 15분·하행선 17분, 5호선 상행선 15분·하행선 11분, 8호선 하행선 38분이 지연됐다. 9호선은 지연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날 회견에는 휠체어에 탑승한 장애인 15명을 포함해 총 40여명의 전장연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들은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안전한 세상을 원한다’고 말했다.

이날 집회 중 지하철에 탑승한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며 항의하기도 했다.

한 승객은 “바쁜 시간에 뭐 하는 거야? 당신들 특권이 뭐야”라면서 “국회 가서 정치인들한테 말해라”라고 소리쳤다. 다른 승객도 전장연 관계자들이 열차 안에서 마이크를 사용해 발언하자 “마이크로 떠드는 거 합법 맞냐”며 “국회 가서 정치인들에게 항의하라”고 말했다.

전장연은 오는 11일까지 지하철 운행을 지연시키는 지하철 탑승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장연은 장애인 권리 예산 반영과 장애인 권리 4대 법률 제정등을 요구하며 지난해 12월부터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을 개최하고 있다.

박경석 전장연 상인공동대표는 “이번 예산 심의에서 저희가 제출한 장애인 예산 권리를 반영해줄 것을 촉구한다”며 “우리가 지하철 타는 것은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안전한 세상을 함께 살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최이슬기자



### 진도소방 119생활안전순찰대, 농촌마을 화재순찰활동 강화

진도소방서(서장 김광선) 119생활안전순찰대(이하 순찰대)는 농촌마을 화재예방을 위해 화재취약지역 순찰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진도=조상용기자



### 무안소방, '119안심콜 서비스' 가입 홍보 실시

무안소방서(서장 박의승)는 응급상황 발생 시 사전에 등록된 정보를 알고 출동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 '119안심콜 서비스' 홍보를 진행 중이다.

무안=이기성기자



### 광주 동부소방, 전통시장 보이는 소화기 일제정비

광주 동부소방서는 전통시장 내 '보이는 소화기' 일제정비를 지난 달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슬비기자



### 순천경찰, 수확기 농산물 절도 예방 활동 강화

순천경찰서(서장 김중호)는 가을철 수확기를 맞이하여 농·축산물 절도 예방을 위해 경각지 순찰강화, 범죄취약지역 방범단, 무인방범시설 확충 등 범죄예방활동 강화에 나섰다.

순천=김승호기자



### 나주경찰,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점검 실시

나주경찰서(서장 박상훈)는 아동생활시설 통학버스 신고필증 부착여부, 통학차량 신고 구조·정치 결함, 보험 가입, 안전교육 이수 등에 대한 점검 등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나주=송준표기자



### 광양경찰, 옥곡5일장에서 어르신 안전드림팀 활동

광양경찰서(서장 정재봉)는 4일 광양시 옥곡면 5일장 일대에서 어르신 안전드림팀 활동을 펼쳤다고 전했다.

광양=김현근기자

# 광주 학동 재개발 4구역, 이르면 내년 3월 해체 공사 완료

### 지난해 6월 중단 이후 1년 5개월 만에 공사 재개 전체 110개 동 중 신고 대상 68개 우선 해체 예정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 정비 4구역 내 잔여 건축물 해체 공사가 내년 3월 마무리를 목표로 중단 1년 5개월 만에 재개됐다.

7일 동구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학동 901-145번지 내 목조 단독 주택(단층·29.09㎡) 해체 공사를 시작으로 재개발 정비 4구역 잔여 건축물 해체 공사가 재개됐다.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현산)은 이날 단독 주택 해체를 시작으로 해체 대상 건물 110개 동에 대한 본격적인 해체 공사에 들어갔다.

현재 해체 대상 110개 동 중 신고만으로 당장 해체를 진행할 수 있는 건물은 68개 동(2층 이하 저층 건물)으로 파악됐다. 이중 지난해 6월 공사 중단 직전까지 해체 공사가 진행 중이었던 38개 동을 대상으로 해체 공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별도 해체 허가가 필요한 3층 이

상 건물 42개 동에 대해서도 관련 서류가 준비되거나 소송이 마무리되면 해체 공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 밖에 8개 동은 해체 인·허가 절차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산은 1~2차로 나눠 해체 공사를 진행한다. 전체 110개 동 중 100~105개 건축물을 1차 대상으로 지정, 우선 해체 공사를 진행한다. 소송 등이 열린 건축물은 1차 공사를 마친 뒤 소송 결과 등을 보고 재개할 예정이다.

현산과 동구는 재개발 4구역 내 모든 해체 공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을 내년 3월로 예상하고 있다.

동구 관계자는 “현장에 이미 상주 감리자가 배치돼 전체적인 해체 공정을 살피고 있다. 해체 공사 주체가 누군지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재하도급에 대한 우려도 없었던 것”이라며 “안전관리자도 추가 배치해 미연



7일 오전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 정비 4구역에서 단독 주택 해체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해체 공사는 지난해 6월 9일 발생한 철거 건축물 붕괴 참사로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친 뒤 약 1년 5개월 만에 재개됐다.

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현산 관계자도 “1년 5개월 만에 재개되는 해체 공사에 만큼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정하고 있다”며 “비슷한 재해나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안전한 공정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학동 재개발 정비 4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은 2017년부터 학동 633-3번지 일대 12만 6433㎡에 지하 3층, 지상 29층, 19개 동, 2314세대 규모로 추진 중이다.

지난해 6월 9일 오후 4시 22분께 학동 4구역 재개발 철거 현장에서 무너진 지하 1층·지상 5층 건물이 승강장에 정차 중인 시내버스를 덮쳐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쳤다.

최이슬기자



### ‘욱일기에 경례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

대학생역사동아리연합, 대학생겨레하나 관계자들이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 욱일기에 경례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 청년학생 기자회견’에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음주운전하다 갓길에 차량 세우고 잠든 20대 입건

광주 북부경찰서는 7일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28)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오전 6시 37분께 광주 북구 누문동 일대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취소 수위에 해당하는

음주 상태로 차량을 문 혐의로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음주운전을 하다 편도 2차선 도로 갓길에 차량을 세운 채 잠이 든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갓길에 선 차량이 움직이

지 않는다. 음주 운전이 의심된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자세한 음주운전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

이슬비기자

# ‘이태원 핼러윈 참사’ 토끼 머리띠男 무혐의

이태원 핼러윈 참사 현장에서 사람들을 고의로 밀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토끼 머리띠’ 남성을 조사한 경찰이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수사를 종결했다. 경찰청 특수수사본부(특수본)는 7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렇게 밝혔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토끼 머리띠 남성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마쳤으며 휴대폰 위치나 폐쇄회로(CCTV)상 혐의점이 없어 (사건을) 종결했다”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 이후 목격자들 사이에서는 좁은 골목길에서 일부 사람들이 “밀어” 등을 외치며 고의로 밀었다는 주장이 연이어 제기됐다. 특히 온라인 상에서는 이태원 인파 사진 속 ‘토끼 머리띠’를 착용한 남성이 “밀어”라고 외친 인물로 지목됐다.

하지만 당사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당일 이동 경로 등을 제시하며 의혹을 전면 반박했다. 경찰은 해당 남성을 직접 불러 조사한 뒤 해당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한편 특수본은 각시탈을 쓴 사람들이 참사 발생 전 아보카도 오일을 뿌렸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김 대변인은 “폐쇄회로(CCTV)상 아보카도 오일이 아니라 짐빔(Jim Beam·미국 위스키 브랜드의 한 종류)으로 확인했고, 사진 촬영 위치로 보아 일단 혐의점이 없어 보인다”라면서 “소환조사를 통해 최종 혐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뉴시스